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윤석 윤학 변호사·힘몰결아트센터 대표

여권의 히어로였던 윤석열이 여권의 기피 인물이 되고 야권의 대표 주자가 되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2년 전 내 사무실 건너 대검찰청 앞 도로는 '조국 파'와 '윤석열파'로 나뉘어 아수라장이었다. 진보 진영의 후광을 입은 검찰총장이 진보의 아이콘 조국을 수사하다니...

윤석열이란 사람이 궁금해졌다. 나라를 위해 나선 것이라면, 그에게 길거리의 지지와는 또 다른 위로가 필요할 것 같았다. 그러나 현직 검찰총장이 나를 만나주겠는가. 하지만 진심이 통했던 것일까. 어느 일요일 그와 찾집에 마주 앉았다. 내 궁금증에 그는 분명하게 답했다. "우리 대통령들이 모두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정권 내부의 환부를 도려내야 합니다. 대통령도 제 마음을 아실 겁니다."

현 정권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수난의 길을 걸겠다는 그의 결의에 내가 오히려 위로받는 것 같았다. "이전 정권을 수사할 때는 당시 역시 '정권의 개'인가 했는데 지금 현 정권까지 수사하는 걸 보니 이제 '검사'로 보이는군요." 그는 무례한 내 말에 화를 낼 뻔했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의 그릇이 작진 않은 듯해 한마디 했

윤석열, 그의 선거 전략은?

다. "앞으로 진보든 보수든 모두 힘들게 할 겁니다. 국민들만 보고 힘껏 나아가세요."

그 후 대통령이 '불의한 내 편'을 감싼다는 의구심이 커져 갔고 결국 서울·부산 보궐선거로 국민의 마음이 확인되었다. 만약 큰 대통령이 윤석열의 정권 내부 수사에 협조했다더라면, 문 대통령이야말로 내 편이 잘못에도 칼을 빼어 드는 공정한 대통령이라 국민은 얼마나 환호했을까. 그것은 문재인 정권의 성공으로 이어지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라는 구호는 아예 생겨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정권이 어떤 이를 공격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거물이 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봐 왔다. 박정희의 탄압이 김영삼·김대중을 거물로 만들었듯이 문 대통령이 윤석열을 내치자 현 정권 인사들은 무차별적으로 그를 공격했다. 윤석열을 키운 것은 바로 대통령이었다. 요즘도 여권은 그에 대한 비난을 연일 쏟아 내고 있다. 마치 그를 야권의 대표 주자로 세워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작정한 것처럼... 지금 여권의 선거 전략은 맞는 것일까.

정권 교체가 시대정신이라고 굳게 믿는 국민도 많다. 그러나 정권 교체에 희망을 걸었고 수없이 정권 교체가 이뤄졌지만 무엇이 달라졌던가. 정권 교체를 내세우면 정권을 지지하는 편과 정권에 반대하는 편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다. 결국 세상은 내 편만 감싸는 불의한 소리로 채워지고 말 것이다. 그런 나라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면 반쪽의 실패한 대통령으로, 반쪽의 실패한 국민으로 남게 된다. '정권 교체' 전략이야말로 '편 가르기'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야당은 현 정권을 편 가르기의 명수라고 극렬하게 비난해 왔다. 야당 스스로 '편 가르기'로는 여당의 적수가 아님을 자인하는 셈이다. 그런 야당이 정권 교체라는 '편 가르기'에 의지하여 선거를 치르려 한다. 지금 야권의 선거 전략은 맞는 것일까.

이승만 시대부터 여당은 '재집권' 구호로, 야당은 '정권 교체' 구호로 네 편을 공격하며 네 편을 결집시키는데 주력해 왔다. 적과 동지를 갈라야만 달성되는 '재집권'이나 '정권 교체'는 무엇을 만들어 내겠다는 전략이 아니라 상대를 무너뜨려 권력을 차지하려는 제로섬 게임일 뿐이다. 이런 선거 전략으로는 어느 쪽이 선거에 이겨도 지는 것이다.

지금 정치인 윤석열은 정치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며 세력을 키워 가는 현실 정치에 몰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지금의 그를 만든 것은 현실 정치가 아니라 현실 정치에 진절머리를 치며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갈망이었다. 그가 현실 정치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그에 대한 지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금 그의 선거 전략은 맞는 것일까.

국민 역시 '재집권'이나 '정권 교체'니 하며 가족까지 갈라서는 '내 편' '내 편' 선거에 열광하고 있다.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것은 재집권이냐 정권 교체가 아니다. 국가의 틀을 바로잡고 인간다움을 회복해, 선진 문화국가로의 새 시대를 여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진정한 소망일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간직한 뜨거운 가슴보다 더 현실적인 선거 전략은 없다.

오로지 그 길로만 가면 선거에 진다 하더라도 성공이고, 만약 당선까지 된다면 대성공인 것이다. 역대 검찰총장과 다른 길을 걸었던 야권의 유력 후보 윤석열이 과연 그런 길을 갈 수 있을까?

종교칼럼



중현 광주 침심사 주지

"스님들도 사주나 관상 같은 거 보나요?" 기대 반, 호기심 반 표정으로 그녀가 질문했다. "나는 점쟁이가 아니라서 사주 팔자 볼 줄 몰라요. 정말 미래가 불안하면 본인이 믿는 신에게 마음을 의지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지요." 내가 대답하자, 다소 풀 죽은 목소리로 되물었다. "저... 종교 없는데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무얼 믿고 살아야 하나요?" 다시 돌아온 질문에는 약간의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공시생이다. 시험까지 남은 시간은 일 년. 그동안 그녀는 무엇에 의지하여 자신을 담금질해야 할까? 몸도 마음도 지치고 불안할 때 힘이 되어 주고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만약 그녀의 밖에 그녀가 믿고 의지할 만한 든든한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그녀에게만 힘이 되어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녀의 밖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니, 그녀처럼 그 뭔가를 애타게 찾는 이들의 눈에 띌 것은 당연하다. 다행히 그 뭔가를 찾아서 믿고 의지한 사람들은 시험 정원에 상관없이 모두 시험에 합격할 것이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그 무엇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의 존재 의미는 사람들의 믿음을 충족시켜 주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녀 앞에 놓여진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그녀가 공부를 열심히 하건, 게으름을 피우건, 심지어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상관없이 그녀는 일 년 뒤 시험에 합격한다. 왜? 그녀의 미래는 이미 그렇게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가 원하는 것은 그저 생기는 뜻밖의 횡재가 아니다. 남은 일 년 동안 회의와 불안에 짓눌려 헤매지 않고, 무기력함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고, 초지일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다.

바깥이 아니라면 안에서 찾아야 한다. 그녀 안의 뭔가는 그녀만의 주관적인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그녀 밖의 객관적인 것, 즉 시험으로 나타난다. 그녀가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 아닌 이상 자신의 주관적인 의지가 곧 객관적인 현실로 나타나리라는 보장은 없다. 아무리 그녀가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철저히 믿는다고 해도 세상에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나 많다.

결국 그녀가 시험 합격을 위해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렇다면 질문을 제대로 했는지 의심해 보아야 한다. 질문이 잘못되었다면 올바른 대답, 즉 정답도 있을 수 없다. 시험에 합격하고 싶다는 소원이 크면 클수록 덩달아 커지는 그녀의 불안감, 자신에 대한 회의가 문제이다.

그녀는 이렇게 질문했어야 했다. "제가 일 년 뒤에 중요한 시험을 치르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동안 자신감

을 키우고 또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플라톤은 "믿음은 확인된 지식"이라고 했다. 지식 자체는 정보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지식을 확인한다는 것은 지식이 지칭하는 실체를 경험이나 과학적 검증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정보에 있지 않고 정보가 지칭하는 실체에 있다. 자신감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다. 자신의 가치관, 정치적 신념, 자신의 성격, 식생활의 기호 같은 것은 자신에 대한 지식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나 자신은 글이나 말의 형태로 나의 바깥에 박제화된 정보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자신, 지금 이 순간 자신의 감정, 생각 그리고 행동이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곧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다.

이 세상은 절대자의 뜻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이 세상을 이루는 것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들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서 매순간 모습을 달리한다. 한 아이가 성장하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는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세상을 불교에서는 연기(緣起)하는 실상(實相)이라고 말한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에서 '진인사(盡人事)는 나 자신을 올바르게 성찰하여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요, '대천명'(待天命)은 연기 실상의 이치를 올바르게 알아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이다. 남은 일 년 동안 그녀가 활용할 양식으로 삼아야 할 것은 바로 꾸준한 자기 성찰이다.

광주, 시민 행복을 위해 새로운 미래를 열다

동시에 광주시민과 기업,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광주형 일자리, 인공지능 중심 도시 조성, 코로나19 방역 등 핵심 현안을 함께 해결하는 혁신성 성과를 이루었다.

사회 통합형 광주형 일자리의 첫 사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지난 15일 경형 SUV '캐스퍼'(CASPER)를 출시했으며 첨단 3지구에 들어설 국내 유일 '국가 인공지능 융복합단지'는 AI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꿈을 실현시키는 전진기지가 될 것이다. 산업 불모지였던 광주는 광주형 일자리로 한국 경제의 고비용·저효율 문제를 해결하는 새 역사를 쓰고 있으며, 인공지능 산업으로 미래 100년을 내다보고 있다.

또한 시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체계성' '전문성' '시민 참여'의 3대 방향성을 목표로 안전 관리 9대 혁신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함으로써 광주를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에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선제적 검사 등을 통해 전국 대도시 중 비교적 낮은 수의 확진자가 발생되어 외국의 저명한 학자로부터 모범적인 위기 대응 능력을 인정받기도 하였으며, 추석 명절을 맞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2만 1000여 시민, 소상공인, 업체 등에 351억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방역과 경제의 균형점을 찾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사라질 위기에 있던 9개 민간공원을 작년 6월에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마치며 도심 허파인 도시공원을 지켜냈고, 90.4%라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공원 면적 비율과 초·고가의 공공 재투자 등으로 매우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지역사회 간극이 되는 가족공동체의 행복한 삶에 목표를 두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에도 지속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만남-결혼-임신-출생-육아-돌봄-일-생활-균형' 6단계의 출산 장려 정책 추진으로 광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산율이 6개월째 증가하고 있으며, 청와대에서도 광주를 주목하고 우리 시 정책의 추진 현황에 대해 문의하고 있다.

민선 7기 지난 3년간 광주는 무조건 빠른 길을 택하 기보다 '혁신' '소통' '정령'의 가치를 좇아 원칙과 정도에 맞는 올바른 길만을 걸어왔다. 미래 먹거리로 AI 중심 도시를 선택하는 등 누군가 '가지 않은 길'을 택하기도 했으며, 달빛동맹처럼 목적지를 함께하는 동료들 만나 '새로운 길'을 찾아 내기도 했다. 지역의 역량을 결집해 온 결과 국비 3조 원 시대를 여는 추진 동력을 얻게 되었다.

앞으로의 1년은 이러한 노력들을 실질적인 결실로 나타내어 마침내 목적지에 다다를 차래이다. 이럴 때 일수록 안주하지 않고 더욱 주마가편(走馬加鞭)할 것이다. 그간 뿌린 혁신의 씨앗들이 미래 도시 광주로 싹을 틔우고, 시민 행복으로 거두어질 기대를 본다.

社說

주요 지역 현안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약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대선 공약 발굴이 한창이다. 대선 전에 지역 현안을 담은 공약을 만들어 새로 들어서는 정부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다.

전남도는 옛그제 김영록 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한태평양시대 신해양·관광·환경 수도 전남'이라는 비전이 담겨 있는데 전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담았다는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국가균형발전과 미래성장동력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다. 전남도는 그것에 8대 추진 전략과 32개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핵심 정책이고 다음 정부가 지향해야 할 화두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전남의 쇠퇴는 현실을 막지 못하고 있다. 김 지사가 국가 3대 축의 하나로 남해안 남부권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을 강조한 것도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현실적인 대안이라

고 보기 때문이다.

핵심 과제 대다수는 전남의 미래를 이끌 신성장동력으로 채워져 있다. 글로벌 에너지산업 허브나 그린수소 에너지 섬,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은 전남의 미래 먹거리로 최대한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야 한다. 다만 지역발전 과제 24건까지 포함하면 64개 과제나 되고 82조 원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불요불급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광주 시도 얼마 전 8대 분야 20개 중점 사업을 담은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핵심 과제에는 광주 군공항 이전과 달빛내륙철도 조기 착공 등이 포함돼 있어 관련 시도와의 협력이 공약 반영의 관건이 되고 있다. 전남도에도 무안공항 관련 공약이 많은데 광주공항 이전과 연계돼 있어 광주 시와 공항 이전 해법 찾기에 나서야 한다.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제도 마련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대선공약 반영을 위한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학동 참사 100일' 유족들 눈물 닦아 주어야

무려 17명의 희생자를 낸 '광주 학동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100일이 지났다. 하지만 진상 규명 작업은 더디기만 하다. 유가족들은 추석인 21일 광주시 동구 학동 봉고사도 현장에서 '희생자 추모제'를 열기로 했다. 이들은 또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이른바 '학동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사고 현장에서 철거작업을 하던 재하도급업체 대표, 하도급 업체와 이면 계약을 맺고 공사에 나선 철거업체 직원, 철거공사 성형인 재개발 아파트 시공사 소속 직원 등이 기소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건축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원정업체인 현대산업개발이 불법 재하도급을 알고도 묵인한 탓에 대형 참사로 번졌으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업체 간 공사 나눠 먹기, 공사비 후려치기, 단가 부풀리기 등 재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 하고 있다.

특히 핵심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인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이 최근 구속된 만큼 비리의 연결고리를 추적해 참사의 전모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문 씨는 재개발조합과 계약을 체결해주는 대가로 철거업체 등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학동참사 시민대책위원회도 '공사비 증액 논의 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과 재개발조합의 공모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경찰과 사법 당국은 학동참사를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추가 수사에 나서야 한다. 또한 안전사회를 위한 법적 체계 정비와 함께 비리 불법 행위가 드러난 관련자들을 엄단함으로써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보내고도... 미안해." 어제 친구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문자다. 오랜 벗인 그는 명절 때마다 선물을 보내온다. 사업을 하기에 평소 고마웠던 이들에게 선물을 보내는데, 품목을 고르는 데도 상당히 신경을 쓴다고 한다. 어느 해는 조기, 다음 해는 과일, 그 다음 해는 공산품 등... 받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고르느라 며칠을 고민하기도 한다.

친구는 이번 추석에 처음으로 소고기를 선물로 정했다. 하지만 친구가 선택한 선물은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다. 배달받은 직후 포장지를 뜯고 냉장고에 넣으려는데, 고기 색깔이 검은 빛을 띠는 게 아무래도 꺼림칙했다. 고기를 덮고 있는 랩 포장을 벗기자 약간 의외의 냄새가 났다. 설마 하는 생각에 서너 점을 프라이팬에 구워 봤지만 냄새는 더 고약했다. 음식을 버려야 하나? 아까웠다. 솔직히 짜증도 났다. 이 사실을 친구에게 알려줘야 할지, 그냥 모른 척해야 할지를 놓고 고민했다. 결국 전화를 들었다. 수 십 명에게 선물을 보내는 친구가 자칫 욕을 먹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였다. 휴대전화 속 친구의 목소리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생물이라 혹시 변하거나 품질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직접 수십 명분의 선물세트 포장을 지켜봤다고 한다. 이후 친구는 모든 배달지에 전화를 걸어 이상이 없는지 묻은 뒤, 상한 제품이 간 곳에는 다시 소고기를 보내는 중이라고 했다. 주변에 말치나 과일 등을 선물하거나 선물로 받았다가, 상한 경우가 있어 난감해지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다. 가을 장마에 이어 태풍까지 겹치면서 습도가 높아진 탓이다.

미안한 추석

코로나19로 명절이에도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을 제대로 뵈지 못한 자식들은 불효한 것 같아 미안하고, 평소 도움을 준 사람에게 보낸 선물이 상했다는 소식에 '보낸 이'도 미안하고, 미안해 하는 '보낸 이'를 보고 '받은 이'도 되레 미안하고... 올해는 어느 때보다 모두가 미안한 추석이다. 고마워서 미안하고 미안한 마음이 고마운, 그래서 모두의 마음이 낙낙한 것이 추석 아니겠는가.

아직 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못했다. "괜찮네. 친구! 미안해 하지 말게, 그 마음 이미 받았네." /채희중 사회부장 chae@

기고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

우리는 진밀한 사람을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며 심리적 거리를 물리적 거리로 표현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으로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를 실천하고 있는 요즘이지만, 가까이 있을수록 마음이 가까워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창궐로 대구에서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자 광주시는 대구·경북 지역 환자들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병상 연대'를 펼쳤고, 이에 대구시가 빛고를 전남대병원에 간호사 인력 파견으로 화답하며 달빛동맹은 더욱 굳건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건설의 국가 계획 확정으로 달빛동맹의 198.8km라는 물리적 거리가 한 시간대로 가까워졌다. 20년 만에 친한 동료가가 죽어 된 셈이다. 더욱 견고해진 연대로 달빛내륙철도가 만들어낸 길을 영호남 상생 발전과 국민 통합이라는 빛나는 미래를 싣고 달리게 되었다.

이렇듯 우리 시는 타 시도와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